

‘남도 손맛’ 마을반찬사업 성과 ‘쑥쑥’

32개 업체 매출 28억원...3년새 4배 신장 수도권·쇼핑몰 진출 판매 활성화 노력도

전남도가 남도의 손맛을 바탕으로 추진한 마을반찬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개 마을반찬사업장의 실적을 분석했다. 매출액이 28억원으로 시작 첫해 7억원의 4배로 늘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특

산물로 각종 김치, 장아찌, 젓갈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첫째와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총 305명으로 12.3배, 지역 농특산물 소비량은 818t으로 19배 각각 늘었다. 2009년에는 참여인원 23명, 지역 농수특산물 소비량 41t에 불과했다.

13곳으로 출발한 마을수도 꾸준히 늘어 2010년 10곳, 2011년 23곳, 지난해 10곳 등 56곳에 달했다. 올해는 10곳이 추가로 마을반찬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6개 마을에 불과한데다 이들 마을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편중현상을 보이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아직은 이 사업이 농민들의 농외(農外)소득 창출에 제대로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전남도는 마을반찬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마을

반찬 전문코너’를 개설하고 전남도 소평물인 ‘남도장터’에도 입점시키는 등 온·오프라인 판매 체계를 구축했다. 제조시설 현대화 등으로 업체당 7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영마인드 교육, 사업 매뉴얼 개발, 유통 활성화, 시설현대화 등에 주민 호응이 더해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마케팅사업단을 구성해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통합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장 대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 명물 돌탑 기와집 해남군 해남읍 금강산 명물로 자리 잡은 돌탑. 65도의 비탈진 바위 위에 쌓은 와 기(기와집)탑을 등산객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순천정원박람회 해외홍보 활발

市, 美·日서 설명회 갖고 업무협약 체결

오는 4월 20일 개막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20~10.20)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외 홍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원박람회 알리기에 나섰다. 조 시장은 한국 특산물, 한민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원박람회 설명회를 열고 남가주관광협회·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LA한민회 등 3개 단체와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유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A시의

회도 방문해 정원박람회를 소개했다. 뉴욕과 LA지역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에서는 이미 정원박람회 소개 열풍이 불고 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 나승병 정원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일행도 지난 18일 열린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JCI) 일본 교토총회에 참석, 3000여명의 일본 JCI회원에게 박람회를 소개하고 관람을 권유했다. 조직위는 오는 6월 13~16일 광주에서 열리는 JCI 아시아·태평양연대회가 정원박람회 기간과 겹치는데다 사가현·고치현·카누마시·이즈미시 등



조종훈 순천시장이 미국 LA에서 현지 여행사와 한인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원박람회를 설명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4개 지자체가 정원박람회장의 세계 전통정원 및 실내정원 조성에 참여해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등 일본 JCI회

여수 여문지구 일방통행로 구간 4곳

내일부터 교차로 신호 운영체계 변경

여수시는 여문지구 일방통행로 구간 정보고 사거리, 부영6차 사거리, 여서동 4거리, 원앙아파트 사거리 4개 교차로 신호 운영체계를 비보호 좌회전 후 직파 신호 운영체제로 22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문지구 일방통행로 구간 신호 운영 체계는 직진 후 직파 신호 체계로 직진 신호 시 좌회전 대기차량이 직진 차량의 교통흐름을 막게 된다. 특히 일부 좌회전 운전자들은 직진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개선책으로 직진 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한 신호체계로 변경, 원활한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보조등과 횡단보도 정지선 설치 등을 병행 추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신호 운영체계 변경과 시설을 정비해 교통안전과 차량운행 시간 단축과 주행속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임택기자 lmtim@kwangju.co.kr

여수엑스포 1주년 ‘세계합창제’

6월 11일~17일 12개국 60팀 참가

여수엑스포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2013여수세계합창제가 열린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엑스포 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여수에서 세계 12개국 60개 합창단 200여명이 참가하는 2013여수세계합창제를 열 계획이다. ‘바다의 노래, 기쁨의 노래’ 주제로 열리는 합창제는 어린이·청소년, 민속·흑인영가·가스

펠, 혼성합창, 동성합창, 팝·재즈, 종교음악, 국내합창 등 7개 부문 경연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총 상금은 1억4500만원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세계적인 권위있는 국내외 작곡가와 지휘자, 예술감독 등 총 18명을 심사진으로 초빙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합창제를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이자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합창제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신품종 벼 ‘전남 1호’ 우수

영암 등 6개 지역 실증재배...병해충 저항성·밥맛 등 탁월

전남도가 개발한 신품종 조생종 벼 ‘전남1호’가 현지 적응, 수량, 밥맛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암 등 6개 지역에서 신품종 ‘전남1호’를 1차 현장 실증재배한 결과 10a당 수확량이 540kg에 달했다. 전남1호는 벼의 고질병인 줄무늬 잎마름병에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에 싹 트임이 잘 안 돼 수확기 강우에도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벼는 전남농업기술원이 2008년부터 기존 벼 품종을 교배해 육성한 신품종으로 수확시기가 8월 하순인 조생종이다. 해를 넘겨도 우수한 형질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생종이 취약한 밥맛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생종이어서 태풍 내습 전에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실증재배에서는 지역별 생육상태, 수량성, 쓰러진 정도, 병해충 저항성, 쌀 품질, 조기 재배 벼 품종 대체 가능성, 이상기상에

대비한 재배 안정성 등을 검토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와 내년 고흥과 장흥 등 4곳에서 2,3차 실증재배를 한 뒤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농가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신품종은 기존 조생종 품종인 윤광벼 등과 비교할 때 수확량은 약간 떨어지나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20일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 개관

삼학도 공원내 3층 규모 117억 들어 완공 바다 상상홀·갯벌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

110년이 넘는 개항 역사를 자랑하는 목포에 어린이 바다과학관이 세워졌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117억원을 들여 삼학도 근린공원 내 7130㎡ 부

지에 3층 규모로 지은 이 과학관은 다음달 1일 문을 연다. 수 천m 심해의 생물과 환경까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바다 상상홀, 영유아 대상의 갯벌 모형 체험장인 ‘아이돌’ 등을 갖는다. 가오리를 분탄 과학관은 입구부터 바다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차 있다. 잠수정 형태의 터널을 지나면 얇은 바다, 중간바다, 깊은 바다로 구분해 각각의 생물과 광물을 직접 볼 수 있다. 바닷속 지형, 수온, 수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구와 장비도 갖췄다. 해양, 조류, 파도 등을 활용한 바다 에너지 체험시설은 어린이의 ‘바다 꿈’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임영훈기자 lyc@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얼까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시물,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